

본방사수는 옛말...‘계륵’ 된 시청률

다양한 플랫폼 콘텐츠 소비 대세
중장년층 리모컨 파워에 왜곡 커

시청률은 방송가의 ‘계륵’인가.
기존 시청률 집계 방식이 플랫폼의 다
변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방송관계자들은 “그렇
다고 아예 외면할 수도 없다”며 혼란스
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방송가에는 ‘시청률 1위’를 홍보
하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진다. 리서치 회
사 닐슨코리아가 제공하는 전국 기준 가
구당 시청률이 아닌 저마다 유리한 지표
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2%대(이하 닐슨

코리아)의 tvN ‘위대한 쇼’는 케이블채
널 월화드라마를, 6%대의 MBC ‘복면가
왕’은 수도권 시청률을 기준으로 각각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는 식이다. 때문
에 시청자 사이에서는 “시청률 성적을 믿
지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3일 “표본
패널을 선발해 산정하는 기존 시청률 집
계 방식은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의 활성화로 ‘본방사수’가 중요하지 않
게 된 최근 환경과 맞지 않는다”며 “다
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젊
은 세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
다”고 꼬집었다.

현업 제작진도 기존 시청률에 대한 불
만을 드러낸다. 정철민 SBS PD는 최
근 ‘런닝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청
률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
다. 정 PD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결코 ‘트렌디하다’고느 보지 않는다. ‘콘
텐츠 소비’와 시청률이 별개라 된 셈”이
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층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
반으로 한 OTT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소비
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리모컨 파워’가
이미 중장년층에 넘어간 것도 단순히 시
청률로만 프로그램의 인기를 따질 수
없게 한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중
장년층 이상의 선호도가 과다 반영된 ‘왜

곡 현상’이 심각하다. 시청자 전체를 아
우르는 새로운 지표가 시급한 상황”이라
고 밝혔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도 “중
장년층을 겨냥해 일부 프로그램이 과거
의 포맷을 복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
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각 방송사가 여전히 시청률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
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 PD
는 “시청률은 여전히 광고 판매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표로 받아들여진
다”면서 “각 방송사가 매일 ‘시청률 회
의’를 하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
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2049 시청률·콘텐츠 영향력 지수...시청률 대안 될까?

현재 시청률은 본방송만 기준으로 평
가하는 방식이다. 또 전체 가구 및 유료
가구 등 기준과 모집단이 달라 집계 주체
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플랫폼이 다
변화한 현실에서 이를 포괄하는 정확한
수치도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시청률을
대신할 지표는 없을까.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는 시청
률 집계의 맹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전국 시청률
과 별개로 고정 시청 비중이 높은 20~
49세 시청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2049 시
청률’을 측정, 발표하고 있다. 현재의 시
청률로는 온라인과 모바일 등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젊은층의 시청 행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닐슨코리아가
케이블채널 tvN, OCN 등을 보유한 CJ
ENM과 손잡고 내놓는 ‘CPI’(콘텐츠 영

향력지수)도 또 다른 지표가 되고 있다.
‘CPI’는 검색지수, 동영상 조회수 등 온
라인 반응이 주요 기준이다.

이 두 지표는 최근 광고·주식시장에
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고 판매율과
PPL 수익성 등이 시청률이 아닌 화제성
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결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폰, PC,

고정형TV VOD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이용 행태와 시청 현황을 분석한 자료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청 행태
의 다변화를 포괄할 통합 시청점유율을
도입하는 게 목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새로운 지표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하재근 평론
가는 “시청 행태가 워낙 다양해 이를 제
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이 여전히
여의치 않은 현실”이라며 “장기적 시선
으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13

2019년 10월 4·5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2



BTS 사우디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

그룹 방탄소년단의 사우디아라비아 콘서
트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3일 네이버
는 12일 오전 1시30분부터 사우디아라비
아 리야드의 ‘킹 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
움’에서 펼쳐지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
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콘서트를 브이라
이브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김승현, 예능 ‘알토란’ 작가와 교제 중



김승현

연기자 김승현이 방송작가
와 교제 중이다. 김승현 측
은 3일 MBN 예능프로그램
‘알토란’의 작가와 그가 만나
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
직 결혼을 결심하지는 않았
다고 덧붙였다. 김승현은 1997년 잡지모델
로 데뷔한 뒤 드라마 ‘최고의 한방’ 등에 출
연했다. 현재 ‘알토란’과 KBS 2TV ‘살림
하는 남자들’에 출연 중이다.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데뷔 20주년 맞은 백지영 “베스트앨범 구상”

3년만의 미니음반 ‘레미니센스’ 발표 방송·전국투어 등 왕성한 활동 예고

가수 백지영이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아 새
음반과 베스트앨범 발표, 전국투어 콘서트 등
활동 보폭을 넓힌다.

백지영은 4일 3년 만의 새 미니음반 ‘레미니
센스’를 내고, 각종 음악·예능프로그램에 출연
한다. 솔로가수 공백기 동안 출산과 육아 등에
집중해 온 그녀는 이날 오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
보이는 ‘레미니센스’로 자신이 걸어온 스무 해를
추억, 회상한다. 1999년 ‘선택’으로 데뷔해 ‘대
시’ ‘새드 살사’ 등을 통해 댄스가수로 자리매김
하고 ‘사랑 안해’ 등 발라드 장르로도 음원차트
를 휩쓸었다.

이번 앨범 역시 오랜만에 선보이는 발라드 곡
들로 채웠다. 타이틀곡 ‘우리가’는 백지영의 허
스키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이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또는 이별을 겪은 사람들이 공감

할 가사를 담았다.

백지영은 최근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언
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면서 “데뷔 20주년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모
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래 쉬었으니 다양한 활동으로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
했다.

백지영은 당분간 방송 활동에 전념한 후 11월
23일 수원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백 스테이
지’(BAEK Stage) 전국투어로 팬들을 만난다.

베스트앨범도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
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앨범 수록곡 가운데
관심 받지 못한 곡들로 새롭게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데뷔 이후 20년간 발표한 9장의 정규
앨범 수록곡 70~80곡 가운데 선별해 선보인
다. 그는 “조명 받지 못한 곡이 많아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내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 팬
곡과 녹음을 다시 하면 새로운 노래가 될 것 같
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가수 백지영이 4일 새
미니음반 ‘레미니센스’를
내고 각종 방송 출연과 전
국투어를 이어간다.
사진제공 | 트라이아스

교육·퍼즐

에듀윌

시사상식 대비로 합격 가능성 UP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평균 연봉 1억 ‘은행권’...하반기 공채 준비는?

은행권 하반기 취업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평균 연봉 1억 원에 육박하는 5대 은행(신한·국민·하
나·우리·농협)의 올 하반기 채용인원을 모두 합치면
총 1960명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취
준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5대 은행 하반기 공채 일정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대
부분 서류접수가 마감되어 이번 달부터 필기시험과 면
접 등을 진행한다. 필기시험은 의사소통과 수리능력을
보는 NCS직업기초능력평가와 경제 및 금융 상식을 보
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은행권은
필기시험을 강화하고, 상식 분야의 비중을 높이고 있
는 추세이다.

은행권 인사담당자는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고객
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상식과 경제 지식 등 두
루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박명규 대
표)은 취업 준비생이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일반상식 및 시사상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식 분야
교재를 마련했다. 해당 교재들은
취업 준비로 바쁜 취준생을 위해
빠른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
성한 것이 특징이다.

최신 이슈와 눈물 기술문제, 2019년 취업전략 등으로
구성해 취준생의 사고의 틀을 넓혀준다. 또한 무료 동
영상 강의와 제공해 합격의 가능성을 높였다. 에듀윌의
상식 분야 교재는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취업·면접·
상식 분야에서 9월 베스트셀러 1~3위를 차지하고 있
는 인기 교재들이다. 해당 교재들은 에듀윌 도서몰을
비롯한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
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1	2	7			
		9				2		
	2		3	6	9		5	
2		8		7		5		6
			2		4			
7		4		3		9		2
	6		7	4	5		1	
		7				6		
			6	1	2			

			7		6		4	
1		9	4			8		
	2			8			5	
9				6			1	8
		2	8		1	3		
5	8			9				6
	7			1			3	
		6			3	7		4
	9		2		7			

■ 스도쿠정답

4	7	8	2	1	9	6	5	3
9	2	9	6	8	7	4	1	5
6	1	8	5	4	7	2	9	8
2	8	6	9	6	9	4	1	7
7	8	1	4	8	2	5	6	9
9	4	9	1	7	6	8	6	2
8	5	7	6	9	8	1	2	4
1	9	2	8	5	4	6	7	3
6	6	4	7	2	1	9	8	5
1	9	5	7	4	2	6	8	3
4	8	7	8	5	6	9	1	2
2	6	8	1	9	5	4	7	3
9	7	4	2	6	8	1	8	5
5	6	6	1	7	8	2	4	9
8	1	2	4	9	5	7	8	6
6	9	9	6	8	1	4	2	7
7	2	8	5	4	7	6	9	1
6	4	1	9	2	7	8	5	3